메트로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엄마, 내 책임이야?

[세습재벌 문제없나] ◆ 경영능력; 신세계그룹 정용진

이마트 중국진출 참패… 이번엔 롯데따라 베트남 기웃

"성완종? 잘 몰라 아니, 알 듯도 해"

미국도 여성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검찰 갈 일 있으면 가야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서 '홍준표 1억'이라고 적힌 것과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가 13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각종 질문을 받고 있다. 홍 지사는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밝히고 "(검찰에) 불려갈 일이 있으면 불려가야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총리 만들었는데"

성완종이 이완구에 분노한 진짜 이유일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죽기 전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만나 "이완구를 이완구를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라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성 전 회장이 분노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이완구 총리는 물론 부인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총리는 다 잊겠지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여러 문제 때문에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 충청포럼에서 나섰다. (충청포럼이) 낙하하면 총선 대선 두고보자 고 했다. 충남에서만 수천 장의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 전 회장 중심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 인준의 일등공신이 바로 성 전 회장이었다는 이야기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장악한 충청포럼이 이 총리 청문회 당시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 이름을 자율해 충청지역에 수천 장의 플래카드를 제작해 게시했다는 게 제보의 골자다. 한 광고사에서 장당 7만 원짜리 플래카드를 하루 400장을 찍었다는 것이다. 여러 지역과 여러 광고사까지 모두 고려하면 플래카드 비용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실에서는 또 2012년 대선 당시 충청포럼이 고령층 수백명 이상을 모아놓고 식사대접 행사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의 제보도 공개했다. 700명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등 2000만원짜리 행사를 개최했다는 제보다.

정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와 박 대통령의 취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버려진 것에 대해 충청도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전혀 모른다"며 "플래카드 붙은 건 자발적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충청포럼은 저와 연결 없는 조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플래카드와 관련해 (충청)포럼에 전화한 적 없고, 성 전 회장과 전화한 적도 없다"며 "필요하다면 당시 성 회장과 통화했는지 제 휴대폰을 제출하겠냐"고 했다. 또 "성 전 회장과는 19대 국회 당시 1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늘 제보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죽기 2시간 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부근에서 배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 회장이 숨진 북한산 형제봉과 당일 오전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된 평창동 정토사 주변은 김 전 실장의 자택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김서이기자 srdaun217@metroseoul.co.kr

힐러리 출사표… 막 오른 대선 레이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출정'으로 2016년 미국 대선전의 막이 올랐다.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오후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선거캠프 홈페이지인 뉴캠페인(New campaign)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2분 19초짜리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중산층 경제'를 강조하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챔피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그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주부터 곧바로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현재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텍사스)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를 계기로 잘밑 행보를 이어가던 잠룡들의 공식 출마 선언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민주·공화 양대 진영의 대선 경선구도가 대조적이다. 민주당 진영은 조기 대세론을 등에 업은 클린턴 전 장관이 확실한 독주 체제를 구가하고 있다. 공화당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가운데 각양각색의 잠룡들이 '군웅할거'하며 불꽃 튀는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서이기자

리비아 한국대사관 'IS피습설' 만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현지시간) 오전 1시 20분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연계 무장 괴한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대사관 경비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2명과 행정원 1명 등 한국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격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연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공격의 이유와 배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IS에 의한 공격인지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논평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했지만 공격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주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이 전날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논평을 발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날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반 총장은 외교 공관에 대한 불가침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리비아 내 폭력 종식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대로 향하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성완종의 정치적 딜 폭로' 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폭로한 검찰의 정치적 딜 제안 의혹을 부인했다.

황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했으며 영향이 가해지거나 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딜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별건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됐다"며 "이를 밝히다 보니 회사 내 분식회계를 포함한 일련의 것들이 연결돼 수사한 것이지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 전 회장은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외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자원외교)랑 제 것(1조원 분식)을 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 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송시현기자

김우남 위원장실 제공

세월호 3차원 영상 공개… 세부손상 확인

선체, 전반적으로 손상없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세한 자료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선체가 휘거나 뒤틀리는 등의 변형이나 금이 가는 등의 선체 손상은 없었다. 다만 좌현 후미부분에서 충격에 의한 변형이 확인됐다. 선체 상태는 정부의 기술검토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인양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13일 정부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음향영상사진 등 총 46개의 3차원 전재분석 자료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자료다.

변형이 일어난 좌현 후미 부분은 선미 상부 갑판 좌현부분이 2.5m가량 하부갑판 방향으로 압착됐다. 하부갑판 0.5m가량 압착됐다. 선체가 전복된 상태로 침몰하면서 선미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했고, 좌현이 해저면과 접촉되면서 발생한 변형이다.

세월호의 우현, 선수에는 손상부분이 없었다. 선교 상단에 위치한 레이더마스트와 연돌은 손상됐다. 추진기, 방향타, 램프웨이, 안정기 등은 손상이 없었다. 우현의 단절된 승객용 계단 하단부분은 상부로 휘어졌다.

세월호는 수심 약 44m지점에 선체의 좌현이 해저면에 1~1.5m가량 묻힌 상태로 약 53도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원래는 46도로 시계방향으로 다소 회전됐다. 위치도 사고 후 남동방향으로 약 4m가량 이동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사흘 앞둔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에서 작전여고 한 학생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을 나무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지지율 상승 '급제동'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연예 상승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주간집계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취임 111주차(6~10일 조사)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라는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승 중이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분위기가 엇다랐던 지난 6일과 7일에는 각각 38.4%와 38.2%였지만 8일에는 40.5%, 9일에는 40.9%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전 현직 주요 인사가 포함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보도된 10일에는 40.0%로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최종집계는 지난 주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한 39.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첫째 주 이후 5주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54%로 2.9%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부정평가와의 긍정평가 간 격차는 14.3%포인트로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4.3%포인트)과 서울(4.3%포인트)에서, 연령별로는 20대(9.1%포인트)와 50대(1.9%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20.1%, 자동응답 방식이 5.1%였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성완종 파문' 문재인에 불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태풍이 불고 있다. 곧 친박(친박근혜) 게이트'가 되는가 했는데 그 불똥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번졌다. 노무현정부가 성 전 회장을 두차례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국민모임이 문 대표의 해명과 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는 두 번의 특사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며 문 대표가 여권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국민 보기 민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생각에 잠긴 문재인 대표. /연합뉴스

또 국민모임 소속 정동영 전 의원 측 임종인 대변인은 이날 "비리혐의로 지탄받은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두번씩이니 특사 혜택을 받았다"며 "특혜성 또는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 스스로 상고를 포기한 점, 그 후 한 달 만에 특별사면을 받은 점,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주요 인사임에도 성 전 회장의 이름을 비공개로 한 점 등이 의혹의 근거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인데, 예를 들면 사면(과정)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야죠"라며 "그런 일이 없잖아요"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그렇게 못된 버릇들이죠"라며 "자꾸 남탓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격했다.

/이경섭기자 ki k@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만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3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고인의 부모 합장묘 옆에 안장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크게 있게 생각하셨던 것"이라며 비지 4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이 바뀌면 누군가 죽어 나간다

송병형의 다른 생각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누군가 죽어 나간다. 2003년 8월 4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죽었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다. 2015년 4월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었다. 6년 간격으로 어김없이 죽었다.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정 전 회장은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죽었다. 특검 수사 과정에 드러난 현대비자금 150억원이 그의 죽음을 부른 직접적인 계기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시 정권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와중에 희생됐다고 믿는 사람이 대다수다. 현재의 친노(친노무현)계와 동교동계 간 갈등이 증거다.

지난 12월 동교동계의 장좌로 1CK홀딩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호남은 경상도 출신인 노무현을 선택해 민주정권을 재창출했으나 호남인에게 돌아온 것은 국민의 정부 대북(송금) 특검과 호남에 대한 차별뿐이었다"며 "대규모 '호남 대학살'에 앞장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광주시민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이용하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3년 3월 14일 언론인터뷰에서 "(현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동원, 박지원 등 이전 정권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니까 특검이 나온 것 아닌가"라며 "(김 전 대통령도)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설마 했던 동교동계는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정권 내부에 다툼이 이 정도다. 여야 간 정권교체 이루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죽어 나갔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성 전 회장의 죽음은 정 전 회장 죽음의 재판(再版)이다. 설마 했던 성 전 회장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진정한 타깃이 성 전 회장이 아니라는 점도 정 전 회장의 경우와 같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통해 박지원 의원을 노렸다고 세인들은 말한다. 이번에도 성 전 회장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어느 실세를 노렸다고 말한다. 성 전 회장도 경향신문에 "(검찰이) 자원(외교)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지기 해봐도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자원외교)랑 제 것(1조원 분식)을 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 할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들 한다. 부패하기도 쉽지만 들춰내기도 어렵다. 정권의 힘이 충분히 빠지고서야 가능하다. 검찰은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사람이 죽어 나간다.

/정책부장

Unpredictable Box Office Hit Movie

Each movie theater estimates the number of viewers before the movie comes out to organize the theater for every movie. For this, elaborate indicators by the theaters are being used for the assumption. Sometimes, they're on the spot, but sometimes they are off by 11 times more than the expected number or 1/5 less than what they have expected. The movie about General Lee Soon Shin, "Myoung Ryang" was expecting 10 million viewers but there were 176.1%, 17million 610 thousand people which was way beyond their expectations. There was a similar case in one of the Hollywood movies, called "Interstellar". They expected 6 million, but they gathered 10 million 270 thousand which became the 3rd movie to be up on the list of "10 Million Club".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ovies that were faded unexpectedly. "Mr. Go," a film made on July 2013 expected to have 7 million viewers, but the actual number was only 19%, which was 1million 33 thousand people. "Fifty Shades of Grey" a movie based on American novel, expected 1.8 million, but only had 360 thousand viewer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유경) 강사

영화 흥행, 아무도 몰라

각 극장에서는 영화 개봉에 앞서 상영관 편성을 위해 관객 수를 예상한다. 그 예상에는 각 극장이 나름대로 정교하게 개발한 지표가 동원된다. 이런 예상치가 잘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많게는 예상치보다 11배 많은 관객이 들기도 하고 적게는 5분의 1 수준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치기도 한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다룬 한국영화 '명량'은 애초 1000만 관객을 기대했다. 실제는 기대를 뛰어넘어 1761만 관객을 동원했다. 176.1%의 성적을 냈다. 기대작 흥행작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인터스텔라'는 600만 관객이 예상됐다. 실제 성적은 1027만 명을 모았다. 외화로서는 3번째로 1000만 클럽에 가입했다.

반면 예상이 빗나가면서 배급사와 극장을 동시에 울린 영화도 여럿 있다. 2013년 7월 개봉한 '미스터고'는 700만 관객이 예상됐다. 실제 결과는 초라했다. 예상치의 19% 수준인 133만 관객에 그쳤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원작소설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180만 관객이 예상됐지만 36만 관객 동원에 그쳤다.

성완종의 죽음을 부른 '딜(Deal)'

기자 수첩
연미란 <사회부 기자>

검찰 수사를 받던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세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 그가 주검으로 발견된 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안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얘기다.

죽기 직전 한 인터뷰가 공개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지기 해 봐도 또 없으니까 1조원 분식회계 이야기를 했다. 저거(자원 개발)랑 제 것(횡령 등)을 딜(Deal·거래)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 할 게 있어야지요." 성 전 회장의 육성이 공개되자 자살은 검찰로 쏠렸다. 원하는 진술을 확보할 때까지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로 압박하는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 그랬다.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성공불융자금 수사'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일주일 뒤 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가 기업전반으로 확대됐다. 예정대로 구속수사가 이뤄졌다면 정관계 로비로 판이 커지는 전형적인 별건수사 흐름이 될 뻔한 셈이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3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도 인사 청탁 건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엔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에게 북한 지령 등 배후설을 자꾸하기도 했다.

방산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4) 일광공영 회장도 이 같은 저인망 수사방식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광공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컨테이너에서 다량 발견했다는 군사기밀문서는 폐지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방산비리에 대해 감사 중인 감사원도 국방부 영관급 이상 현직 장교뿐 아니라 전역한 지 수년 된 사람들의 자료까지 가져가 기약 없이 쌓아두고만 있다는 말이 들린다.

모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변질된 케이스다. 모기(蚊)를 보고 칼 빼어 드는 것처럼 결국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셈이다. 검찰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외과 수술식' 수사가 아니냐, 그들에겐 단식으로 오류를 배출해내는 '종합검진식' 반성이 필요하다.

인사

■ 문화일보
◇ 편집국 ▲부국장 김병직 ▲정치부선임기자 허민 ▲경제부장 박민 ▲경제산업부장 오승훈 ▲사회부장 정재선 ▲문화부장 엄주엽 ▲체육부장 이준호 ▲사진부장 김연수
■ 뉴시스
◇ 편집국 ▲부국장 겸 산업부장 정문재 △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진용 XML
■ 문화체육관광부
◇ 파견 <과장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혜선
■ 경찰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부장 김영수
■ 한국노바티스
▲미츠 엑세스부 총괄책임 전무 고수경
■ 플러스자산운용
◇ 승진 ▲ 채권운용본부 상무 이관호 △신규 ▲팀장 채권전략팀 차장 박민욱
■ 한국한문연구원
▲ 전라전문본부장 김철구
■ 고려대학교
▲ 언론대학원장 겸 미디어학부장 심재철

부고

▲ 윤석근 씨 별세, 류선진 MBC 국장·계선(사업) 군산비전은행 마케팅그룹 전무) 준선(사업) 혜선 지희 씨 부친상 = 11일 오후 5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4일 오전 5시 30분 ☎ 02-3410-6915
▲ 박기명씨 별세, 동일(기업은행 기금고객부 팀장) 화윤(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 팀장) 미옥(기업은행 고대역부지점장) 미경(신세계 부장) 김동혁(순천향대 산학협력대학 장) 윤경희(사업) 씨 빙부상 = 12일 18시 30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 02-798-1421
▲ 이봉근씨 별세, 오흥국(전 잇세미나 이정의진 관리(부) 홍선(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전 매일경제 부장)씨 오찬상 김미애(서울운정여중 교사)씨 시모상, 장영환(방화엔지니어링 사장·전 지역난방공사 본부장) 김선희(성원건설 부장)씨 빙모상 = 12일 강원동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 033-261-4441

마돈나… 태극기… 카드사 감성 디자인 열풍

소유욕 부르는 차별화된 디자인 눈길

가로 8.6cm와 세로 5.35cm. 전세계 어딜가든 똑같은 모양을 한 카드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카드 플레이트(실물) 소재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한정판 특별 디자인을 선보이며 고객잡기에 나섰다.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신용카드 시장에서 차별화된 모양으로 고객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각 카드 만의 특징을 부각해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 포화상태 카드시장 "소비자 마음 잡아라"

신한카드는 팝의 여왕 마돈나(Madonna)를 카드 속에 담았다.

시예스리테일과 유니버설뮤직코리아가 공동으로 선보이는 '큐 신한카드 S-Choice 체크카드'는 마돈나의 새앨범 '레벨 하트(Rebel Heart)' 커버를 담은 것으로 3000장 특별 한정으로 발급된다.

아티스트의 앨범 커버로 디자인된 체크카드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카드는 체크와 팝카드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현금 충전 없이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시 자동으로 팝 할인과 GS&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태극기로 이뤄진 카드도 있다.

하나카드는 지난 6일 Sync(싱크)와 VIVA G(비바 지)카드 플레이트를 태극기 디자인으로 변경한 '대한민국만세 카드'를 출시했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오는 8월까지 '대한민국만세' 카드를 사용한 회원 815명은 추첨을 통해 사용금액의 8.15%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두산과 삼채 등으로 여행을 하는 고객에게 최고 1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광복절(8.15)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에디션 카드인 만큼 카드 고객에게는 최고 8.15%의 포인트나 최대 5만포인트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휴 맺고 디자인 차별화 특별 한정판 출시

팬심을 자극하는 카드도 있다.

우리카드는 올 초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빅뱅, 2NE1 등의 팬들을 위한 맞춤형 카드를 내놨다.

'우리YG체크카드'는 YG의 CI를 활용한 디자인부터 YG공연티켓 할인과 YG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eshop 할인 등 팬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YG 사옥투어와 리미티드 에디션 카드 패키지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리미티드 에디션 카드 패키지'는 YG 제휴 기념으로 한정 제작되며 신소재를 사용해 특수 제작한 소장용 카드다. 이는 빅뱅과 싸이, 2NE1 등 YG아티스트들에게도 제공된다.

사옥투어는 YG아티스트의 연습실과 작업실 견학, 구내식당에서 식사,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는 우리은행·우리카드가 문화·공연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YG와 업무협약을 맺은 결실"이라며 "YG와 함께 공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청소년·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 디자인 하나만으로 전시회를 여는 곳도 있다.

현대카드는 14일부터 이탈리아 디자인 행사인 '밀라노 디자인위크(Milan Design Week)'에서 '머니(MONEY)'를 주제로 디자인 전시를 연다.

'디자인위크'는 밀라노 시내 전역에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벤트로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와 업계 종사자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1500여 개에 이르는 업체가 참가한다.

현대카드의 전시는 출범 초 카드 디자인부터 지폐의 진중함을 표현한 플라스틱 카드와 금속 주화의 가치를 담은 메탈 플레이트까지 신용카드 디자인의 역사와 혁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화폐를 대신하는 매체로서 신용카드가 지닌 의미와 그 의미를 카드 디자인에 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해 온 과정을 전시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동전을 재구성한 구리 합금 소재의 코퍼(Copper) 플레이트를 선보인바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 플레이트라는 작고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온 현대카드의 끊임 없는 디자인 혁신에 밀라노 디자인위크를 찾은 전세계 디자인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외환銀-금감원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실시 외환은행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외환은행은 경기도 화성발안에서 근로시간과 거리 등의 사유로 평일에 은행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 대상으로 휴일 금융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외환은행 제공

수은-TVEB '금융 협력' 맞손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사업 진출 확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은 13일 청와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거래 관련 금융을 총괄하는 투르크 대외경제은행(TVEB)과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ymukh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이덕훈 수은 행장은 김영학 무보 사장, 라힘베르디 제파로프(Rahimberdy Jepbarov) TVEB 은행장 등이 참여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금융지원 긍정 검토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 등이다.

수은은 이번 협약 체결로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발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가스수출이 국가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지한다.

특히 확인매장량 기준으론 전세계 가스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생산량 비중은 1.9%에 불과해 추가적인 가스개발 잠재력이 크다.

투르크 정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가스·석유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기업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위한 선제적 금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석유가스산업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석유가스사업이 발주되고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이주열 총재, G20·IMFC 회의 참석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G20 장관·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개혁, 투자재원 조달 등 안건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는 IMF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전망, 금융시장 동향과 글로벌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앞서 15일부터 16일까지 IMF가 기획하는 컨퍼런스에 초청된 이 총재는 참석자들과 거시경제정책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IMF 총회의 자문기구로서 국제통화제도, 국제유동성 관련 논의와 더불어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한 대책강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 4월과 10월 연 2회 개최된다.

이 총재는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기업은행, 중기 지원 'IBK성공창업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13일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IBK성공창업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해당 중소기업에 1조원까지 최대 1.0%p 감면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가입 조건은 ▲신용보증서 발급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등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창업기업에 금리 감면을 확대한 상품"이라며 "컨설팅 요청시 창업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illegible] 서울 [illegible]

손보업계, 잇따른 동남아 진출 이득될까

중국·베트남·인니 등 두 자릿 수 성장세 지속 전망
해외 성공 사례 적어…현지 분석 등 체계적 준비 필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손보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보사가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은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부·현대·LIG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잇따라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23일 중국 서부 시안시에 시안지점을 개설했다. 이에 지난달 24일에는 중국 손보업계 1위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PICC)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교육·연구 목적의 인적 교류와 글로벌 보험교관 거래 등에서 업무교류를 추진 중이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3년 중국 우광 회사인 안청손해보험사 지분 15.01%를 인수했다. 같은 해 현대해상도 중국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상품 판매 최종 인가를 받고 중국 자동차책임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현대해상은 앞서 자동차 임의보험과 국내 진출 법인을 중심으로 한 가업일반보험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장악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베트남에서는 삼성화재가 국영재보험사 '비나 리'와 합작한 독립법인 '삼성비나'를 운영 중이다. 동부화재는 지난 1월 말 베트남 현지 손보사인 PTI(Post & Telecommunication Insurance)의 지분 37.32%를 인수한 후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부캐피탈을 활용한 현지 자보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LIG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PT LIG Insurance Indonesia)에 대한 자본금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현지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손보사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 이유는 현지 시장의 빠른 성장세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손보시장은 2020년 260조원대로 성장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베트남시장도 연간보험료 규모는 현재 1조5000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평균 16% 이상 성장했고 당분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수입보험료 기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억5300만명에 달하는 인구 중 보험 상품의 가입률은 4.1%에 불과해 추후성장가능성도 높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2017년에 방카슈랑스 독과점계약 제도가 폐지되고 자동차보험의무 가입제도를 도입한다. 후발주자인 국내 보험사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손보사 해외점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손보사는 50만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서 실적이 악화됐다. 이 기간 중국에서 벌어들인 순익은 전년 대비 23.2% 줄어든 255만 달러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도 전년 대비 각각 46.2%, 69.2% 순익이 감소했다. 베트남은 6.4% 순익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계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과 영업경쟁 과열로 대형사 위주로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해외 중 국내와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성장세가 두드러진 동남아시아가 주요 진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삼성화재가 베트남에서 시장점유율 7.2%를 기록하고 있는 것 외에는 현재 영향력이 없고 전체 실적도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과의 관계 유지와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없이는 국내 손보사가 성공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4041@metroseoul.co.kr

김한섭FC·이정민TMR '대상'

KB생명, 연도대상

KB생명은 지난 10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축하하는 'KB생명 2014 연도대상'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사 창립 이래 최초로 전 영업채널을 통합해 진행됐으며 우수 설계사와 임직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FC채널부문과 DM채널부문 대상에는 각각 삼성지점 김한섭 FC와 이정민TMR이 선정됐다. 또 이충세 과장은 방카슈랑스 부문 우수 RM상을, 정재호 지점장은 GA 특별상을 수상했다.

신용길 KB생명 사장은 "영업인프라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현장 영업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충실한 컨설팅을 통해 완전판매를 함으로써 고객신뢰를 확보해자"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메트라이프재단, 주거환경 개선 위한 봉사활동 실시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주변환경 취약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거리조성 사업인 '스누피 빌리지(Snoopy Village)'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자들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메트라이프재단 제공

'최고실적' 남상분·김휘태 대상

현대해상, 연도대상

현대해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2014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몽윤 회장과 이철영·박찬종 대표이사 등 임직원 293명이 참석했다.

한해 동안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하이플래너에게 수여되는 대상에는 전판사업부 제일프로지점 남상분(여·대리점부문)씨와 전연사업부 전연신라지점 김휘태(설계사부문)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리점부문 대상 수상자인 남상분씨는 올해 55억원의 보험료 매출을 올리며 5번째 대상을 수상했다. 설계사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휘태씨도 올해 39억원의 보험료 매출을 올렸다.

정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총자산 27조원 돌파와 월매출 1조원 시대 진입, 그리고 판매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손해보험부문 1위를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보험시장의 경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를 통한 손익 개선 노력과 하이플래너로서의 전문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완전판매 실천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출입물가 두 달 째 상승…오름폭은 둔화

소비자물가 견인엔 역부족

3월 수출입물가가 달러 강세로 전월대비 각각 소폭 올랐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하락 폭은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달 수출물가는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물가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13일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는 84.46으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한은은 공산품 중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12.57원으로 전달 1098.40원보다 1.3% 올랐다. 화학제품가격은 4.0% 상승했으며 품목은 에틸렌 21.7%, 벤젠 15.6%, 프로필렌 15.5%, 폴리프로필렌수지 14.7%, 폴리에틸렌수지 7.7%, 테레프탈산 7.1% 전월비 상승했다.

그러나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수출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화(계약통화)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0.1%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평균 가격은 54.69 달러로 2월 55.69 달러보다 1.8% 하락했다. 이에 따라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한 원재료는 전월비 0.1% 하락했으나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는 0.5% 상승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0.2%, 0.6% 상승했다.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달보다 0.6% 내렸다.

이로써 수출입물가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저점을 찍은 뒤 두 달째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오름폭이 둔화됐고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수출물가는 6.8% 하락했고 수입물가는 17.1% 나 떨어졌다.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2012년 5월 이후 100을 넘지 못했고 같은 해 7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등락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물가도 2013년 10월부터 100아래로 떨어진 지수는 지난해 2월 한자례 100.12로 오른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수입물가지수도 2012년 9월 -2.2%의 전년비등락률을 시작으로 31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국제유가하락으로 수출입물가가 이미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 1월 전망한 1.9%에서 0.9%로 대폭 내렸다. 0%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호텔·별장·수익 세가지를 모두 누려라!

별장으로 쓰다가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 12% 높은 임대수익!

타 지역 라마다호텔 대비 반값 분양가 투자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아 화제

강원도 태백에서 이미 준공돼 운영중인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가 파격적 분양가와 투자안정성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이라 준공 리스크가 없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격은 9,500만원대, 대출시 실투자금은 4천만원대라 소액투자자에게 부담이 없으며 최근 분양된 타 지역 라마다호텔 분양가격의 절반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도금 납부 시 8%의 수익을 즉시 지급한다.

기존 분양형 호텔은 운영사가 호텔 운영비를 제외한 뒤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라 투자자가 호텔 운영 수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강원라마다호텔 & 리조트는 공신력을 갖춘 신탁회사에서 직접 수익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10년간 연 12%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며 4%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부분이다. 5년 후에는 원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환매가 가능한 조건이다.

라마다를 대표하는 상위브랜드

수익형 분양 호텔 중에 가장 돋보이는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라마다이다. 라마다는 전 세계 66개국 약 7,380개의 호텔을 운영, 세계 최다 호텔을 보유한 글로벌 호텔그룹 윈덤그룹의 브랜드로, 전 세계 모든 공공사와 연계된 예약시스템구축을 통한 뛰어난 경쟁력, 체계적 시스템과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유명하다.

믿을 수 있는 운영사가 중요

호텔 운영은 라마다 한국 공식 에이전시 산하HM이 직접 운영해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로 투자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산하HM 운영사는 국내 약 50여개 호텔을 운영 및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업계최초로 공신력을 갖춘 부동산신탁에서 운영수익금을 관리해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증명하고 있다.

호텔관계자는 "강원라마다 호텔 & 리조트는 정선과 태백의 천만 수요를 지향하는 레저관광지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 합리적인 분양가격 대비 호텔의 평균 숙박료도 저렴하게 책정돼, 단체관광의 특성화 호텔로 국내외 여행업계와 협력업체 등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며, 방문 시 사전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금 100만원을 입금하면 좋은 조망과 좋은 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문의 02-776-2000

분양형 호텔도 강원도가 대세 "연 1000만 수요"를 사실상 독점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뭉칫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호텔 객실분양 투자상품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약 50여 개의 신축 호텔들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공급 과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반면 강원도는 분양형 호텔이 없어 경쟁력이 높고 관광객도 연간 1,200만 명을 넘어 제주도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강원도는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성수기가 아니어도 호텔 예약률이 높아 호텔 사업의 최적지라는 평을 얻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 이후 평창, 강릉, 정선 등의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혜는 물론 개발호재가 잇따라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올림픽 특구사업, 개발호재까지 합쳐져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단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비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관련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

강원도 관광객 수

키움증권, RQFII 주식형펀드 판매

키움증권(대표이사 권용원)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의 수혜주와 성장 관련주에 집중 투자하는 '동부차이나본토RQFII 주식형펀드'를 지난 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선강퉁 시행에 앞서 심천A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펀드'를 3~4월 추천펀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운용한도를 넘은 자금유입으로 인해 해당펀드 판매가 잠정 중단되자 키움증권은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동부차이나본토RQFII 주식형펀드'를 추천펀드로 교체해 마케팅 중이다.

RQFII펀드는 기존 중국본토 QFII펀드와 비교시 환매기간이 5영업일로 짧고 A클래스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로 저렴해 자금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염정훈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장은 "2월 말부터 선강퉁의 출범 가능성을 주목해 관련펀드의 이슈리포트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선제적인 마케팅을 시행했다"며 "3월 중에 중국 선강퉁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 급등과 함께 자금유입이 급증했고, 이에 연금펀드와 신규본토RQFII 펀드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키움증권은 동부차이나본토RQFII 주식형펀드 등을 포함해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선취판매수수료 무료와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차액을 분기단위로 고객에게 100% 현금 지급하는 제도다. /김보배기자 bobae@

유안타증권, '중국투자 대장정' 발간

유안타증권은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중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월보 '중국투자 대장정'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지난해 11월 후강퉁 시행과 함께 '후강퉁 가이드북', '후강퉁 핸드북' 등을 발간하며 중국 시장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달 첫 선을 보인 '중국투자 대장정 4월호'에는 전월 중국시장 동향과 4월 투자전략,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후강퉁 관련 각종 통계 자료 등이 담겨 있다.

또 3월 개최됐던 양회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그리고 하반기 시행 예정인 선강퉁(深港通), 심천증시 A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을 이슈분석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炎良?'(중국아 놀자) 코너에서는 중국 사회문화와 경제, 그리고 중국증시 테마 10선을 다루고 있다. 유안타증권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작성한 중국 대표기업 20선 등 한국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중국 기업분석자료도 제공했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중국투자 대장정 4월호'를 통해 최근 급등한 상해증시의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후강퉁 시행 이후 확대된 A주와 H주의 괴리율에 주목해 중국 투자 포트폴리오에 홍콩증시에 상장된 H주를 일부 편입시킬 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리서치를 통한 투자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후강퉁 시행 이후 4월 3일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14개)의 평균수익률이 59.1%인 반면, 유안타증권 거래대금 상위 종목(20개) 평균수익률은 무려 98.6%에 이르고 있는 것. 더욱이 글로벌투자자 거래 상위종목과 겹치지 않는 유안타증권 단독 종목들(13개)의 평균수익률은 116.1%로 두 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보배기자

활기 띤 증권가, TV광고 늘린다

유안타·이베스트 등 쉽고 친근한 광고로 고객 시선몰이 나서

(사진) 연합뉴스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새 광고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쉽고 친근한 광고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늘려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이 새롭게 광고를 선보였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3일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TV 광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광고에서 유안타증권은 고객을 '당신(YOU)'으로 부르며 "고객의 행복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이달부터 광고를 시작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포털사이트와 인쇄광고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더불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월 1일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후강퉁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개별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후강퉁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인하 서비스 기간 동안 업계 최저 수수료(0.15%) 혜택을 받아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호감형 대세'로 떠오른 배우 김희원을 모델로 발탁했다. 지난 2008년 8월 HTS 출시 당시에 선보인 TV광고 이후 약 6년 만이다. 배우 김희원은 지난해 드라마 '미생'에서 박 과장으로 열연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유진투자증권은 TV CF 공개와 함께 오는 5월 15일까지 SNS 공유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SNS에 공유한 고객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을 통해 신규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1년 동안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혜택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KDB대우증권은 개인연금 유치를 위해 축구선수 차두리를 모델로 발탁해 최근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광고 오픈에 앞서 지난달 6일 공개된 총 세 편의 티저 광고는 공개 10여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관심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국내 고객 '호갱' 만든 갤럭시S6…관련주 약세

북미 성공여부가 향방 가를 것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6'과 '갤럭시S6 엣지'의 공식 출시일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를 찾은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최근 갤럭시S6와 S6엣지를 출시하면서 관련 기업들 주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출시 3일이 지난 현재 해외에서의 갤럭시S6와 S6엣지에 대한 반응은 뜨거운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갤럭시S6 구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국내의 갤럭시S6 구입 가격이 크게 차이 나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중 7만5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장 마감을 20여분 앞두고 0.52%(400원) 소폭 올라 7만66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기는 갤럭시S6의 카메라 모듈, 와이파이 모듈, 무선충전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갤럭시S6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왔다.

배터리와 OLED를 생산하는 삼성SDI도 장중 13만3000원까지 하락했다가 13만4500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앞서 동부증권은 삼성SDI에 대해 갤럭시S6로 인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주가를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예상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나마 마케팅을 담당하는 제일기획은 0.20%(50원) 오른 2만4700원으로 마감해 체면을 세웠다.

삼성 계열사뿐 아니라 코스닥 관련 부품 업체들도 약세를 보였다.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인 파트론과 해성옵틱스는 각각 전 거래일대비 3.11%(450원) 내린 1만4000원, 3.44%(230원) 내린 6450원에 마감했다.

이밖에 무선충전을 켐트로닉스 1만1250원(-2.60%), 이모텍 1만9800원(-6.82%), 크로바하이텍 5710원(-1.38%) 등도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아이마켓코리아는 전일대비 0.58%(150원) 오른 2만5850원에 거래되며 갤럭시S6 관련 업체 중 수혜주로 떠올랐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삼성그룹을 주력으로 하는 B2B 전자상거래 업체로, 소모성 자재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매 대행하고 있다. 갤럭시S6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지수 하락을 방어한 모양새다.

윤혁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6 관련주 주가는 출시 이전부터 높아진 기대감에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당분간 하락할 여지가 있다"며 "보조금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판매량은 10% 정도만 차지할 뿐이어서 삼성전자의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의 성공여부가 관련주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현대차, 영업익 느는데 기부는 '찔끔'

작년 매출比 기부비율 0.08%… 삼성·SK에 밀돌아
"생색내기보다 국민참여 견인차 역할 필요" 지적도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실적을 거뒀지만 기부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순위권 기업과 비교해도 저조한 비율이다.

삼성전자나 SK 등과 매출이나 영업이익 대비 저조한 기부비율 실적을 거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9조2563억원을 올렸다. 전년 87조3076억원 대비 2.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7조5459억원을 냈다. 반면 기부금은 2013년 751억원에서 지난해 710억원으로 5.5% 감소했다.

매출 대비 0.08%, 영업이익 대비 0.94% 수준이다.

지난해 별도기준 현대차는 매출 43조458억원, 영업이익 3조73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매출 41조6911억원, 영업이익 3조7210억원)과 비교해 각각 3.2%, 0.4%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기부금은 566억원에서 499억원으로 11.8% 줄었다.

매출 대비 0.12%, 영업이익 대비 1.34%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06조2059억원, 영업이익 25조250억원에 4097억원을 기부했다.

매출 대비 0.20%, 영업이익 대비 1.64% 수준이다.

현대차보다 각각 0.12%포인트, 0.70%포인트 높다.

삼성전자는 별도기준으로 매출 137조8255억원, 영업이익 13조9249억원에 기부금은 3157억원이다.

매출 대비 0.23%, 영업이익 대비 2.27% 규모로 현대차보다 각각 0.11%포인트, 0.93%포인트 높은 수치다.

SK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10조6111억원, 영업이익 2조3688억원에 1301억원을 기부했다.

매출 대비 0.12%, 영업이익 대비 5.45% 수준이다.

현대차보다 매출 대비 0.04%포인트, 영업이익 대비 4.5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기부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CEO가 얼마 냈다는 생색내기 식의 기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글로벌 기업이라면 해당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기부문화 정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BMW의 드라이빙 센터가 좋은 예다. BMW는 독일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다"며 "자동차 박물관 개설이나 자작자들 만드는 대학생 꿈나무 양성 등에 실질적인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자동차 문화를 발전시키고 해당 브랜드를 타는 오너드라이버의 가치를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필기자 ****@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13일 청와대에서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오른쪽)와 사카미라트 오라즈미라도프 산업부 장관이 철강생산 플랜트 건설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인터, 투르크와 제철 플랜트 MOU

10억 달러 규모

대우인터내셔널은 투르크메니스탄 산업부와 10억 달러 상당의 철근과 파이프 생산 제철플랜트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잠재적 전략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연산 50만톤의 파이프와 50만톤의 철근을 생산하는 제철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이번 MOU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성장을 모델링해 투르크메니스탄 내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산업고도화를 계획 중"이라며 "제철플랜트 사업 참여를 계기로 향후 농업용 트랙터 펜지 제조 사업과 전력, 교통, 통신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종기자 ****

정부, 혈세 불태운 광물공사에 '매쓰'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수사가 확대되면서 윤지마 투자, 사업비 유용 등 광물공사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서 정부가 해외자원사업 부문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광물공사가 부실화되면서 해외자원사업 부문에 대한 매각 등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컨트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지휘 아래 광물자원공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해외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물공사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광물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실과 비리가 전방위로 드러나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후 광물공사는 2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이중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자카드노 금 탐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또 최근에는 광물공사가 980만 달러를 투자한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도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여기에 광물공사는 당초 볼리비아 정부와 계약한 1000만 달러의 투자분을 충족치 않고 사업을 접어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꼬로꼬로 동광사업과 관련해 수익성이 없어 볼리비아 정부와 사업 중단을 취하해왔다"며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고 사회주의 국가라서 60만 달러는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꼬로꼬로 동광사업을 위한 광물공사의 현지 해외법인(MCC-Minera CoroCobre S.A)이 사업비를 출장·노래방 등에서 유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인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CC 합작파트너사인 볼리비아 국영 광물공사 꼬미볼(COMIBOL)사가 MCC의 회계장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MCC 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술집, 노래방, 쇼핑몰 등 부적절한 사용처에서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약 30만 달러에 이르는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측은 사업비 유용 의혹에 대해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했으며 유용규모가 30만 달러나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리한 해외투자와 사업비 유용 등 비리와 함께 광물공사의 재정건전성도 무너진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신종 전 사장이 광물자원공사에 취임한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은 85.4%였지만 해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2013년에는 부채비율이 219%(4조원)로 급증했다. 또 차입위주로 자원개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공사의 차입금 규모는 1조380억원이다. /송태종기자

제주항공, 항공기 추가
올 연말까지 22대 보유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은 13일 항공기 추가 도입으로 보유 항공기가 19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도입된 항공기는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와 같은 B737-800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대의 항공기를 운용했던 제주항공은 국제선 신규 취항과 국내선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4월 이후에도 총 4대의 항공기를 더 도입한다.

사용계약이 끝난 항공기 1대를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모두 22대를 보유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단 확대를 통해 항공시장 비중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노선과 스케줄 구성으로 소비자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라기자 ****

두산重, 베트남서 1조 규모 화력발전소 수주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1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부 황 중하이 부수상과 발주처인 베트남 석유공사 응우옌 쭈억 칸 사장, 국영기업 릴라마의 르 반 뚜언 사장, 두산중공업 정지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0MW급(600MW x 2) 송하우 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송하우 1 석탄화력발전소는 호찌민에서 남서쪽으로 200㎞ 떨어진 하우장 지역에 건설되며 베트남 남부 지역의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은 보일러, 터빈을 비롯한 주기기와 보조기기 등 발전 설비 부문을 일괄 도급(EPC) 방식으로 공급해 오는 2019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단곤 두산중공업 EPC BG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2020년까지 약 30GW 규모의 베트남 발전시장 뿐 아니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더욱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라기자

왼쪽부터 두산중공업 부회장 정지택, 오른쪽 릴라마의 르 반 뚜언 사장이 13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송하우(Song Hau)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 제공

이재용 '핀테크 드라이브'… 해외서 통할까

中·美 넘을 전략기반 구축 절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핀테크 기술 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애플페이와 중국의 알리바바사가 운영하는 알리페이 등의 벽을 넘기 위해선 전략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며 직접 핀테크 사업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 임직원이 핀테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 3부작을 한 달 가까이 방영했다.

또 지난 12일 치러진 삼성직무적성검사(SSAT)에서는 중국역사와 IoT(사물인터넷)와 핀테크(금융+기술) 등 IT(정보기술)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핀테크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해외 공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자·금융 서비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점유율만 50%에 육박하며 가입자는 8억명에 달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중국 핀테크 시장 장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지제 OS(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벽을 넘어야 한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아이폰6에 근거리통신기술(NFC)과 지문인식시스템을 결합한 '애플페이'를 선보이며 미국 시장 결제 시장을 선점했다.

애플의 첫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에도 결제 기능을 넣었다. 특히 애플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주요 카드사 이외에도 맥도널드, 스타벅스, 디즈니랜드 등과 손잡고 미국 시장에서 애플페이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구글도 오는 5월 핀테크 사업에 합류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애플과 구글처럼 자체 OS를 다종화 하지 못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성격을 이용한 결제에 집중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 강화보다 삼성페이를 탑재한 단말기 보급률과 협력사를 최대한 확보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최근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핀테크 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를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유한 곳, 통신 인프라를 쥐고 있는 곳이 잘할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금융산업과 IT 기술, 협력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화 역량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핀테크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건 쉽지 않다"며 "중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성향이 강하고 미국은 애플과 구글이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삼성전자가 핀테크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거점을 구축하느냐가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유재준기자 yjw@metroseoul.co.kr

"강렬한 태양빛도 밤하늘 별빛도 선명"

삼성전자 'SUHD TV' 美 NAB박람회서 선봬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의 방송통신 미디어 전문 박람회에서 'SUHD TV'의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 방송기자재 박람회 NAB(전미 방송사 연합)쇼 부스 곳곳에서 2015년 신제품 SUHD TV의 HDR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NAB쇼는 방송 통신 콘텐츠 관련 신기술, 방송 장비 소개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미국 최대의 방송통신 미디어 전문 박람회다. 전세계 주요 방송 기자재 업체들과 TV 등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최신 기술과 제품을 대거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북미 300여 개 지역 방송사 연합인 싱클레어 방송 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인 테크니컬러, 영화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인 아리 등과 협업해 HDR과 같은 차세대 UHD 화질 방송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HDR은 차세대 UHD 영상 기술의 핵심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 재생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HDR을 이용하면 이전까지 TV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태양의 강렬한 빛부터 밤하늘의 별빛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한강욱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삼성 SUHD TV에 적용된 HDR은 차세대 프리미엄 UHD 시청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이라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사물인터넷시대… ESL로 삼성전기 반등할까

유럽 불경기, 시장확대 관건

삼성전기가 삼성그룹의 신성장동력 추진에 궤를 맞춰 추진중인 사물인터넷(IoT)사업인 전자가격표시기(ESL) 등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는 IoT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으로 ESL로 반전을 꾀하려 하지만 유럽 경기 불황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모듈,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부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은 연결기준으로 2013년 4639억원에서 작년 16억원으로 급감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작년에 나온 갤럭시S5 판매량이 부진했다"며 "삼성전자에 부품을 수주하는 삼성전기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SL은 매장 진열대에 설치되는 가격표시 시스템으로 기존 종이로 출력된 상품정보와 가격을 표시해 준다. 또한 ESL을 이용하면 중앙 서버에서 진열된 제품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럽 매장에 배치된 ESL. /삼성전기 제공

지난 8일 삼성그룹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IoT 비즈니스 종류를 설명하며 "산업형 IoT는 쓰레기통에 달린 센서를 통해 어떤 쓰레기통이 찼다라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며 "그에 따라 대응하면 물류나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말한 산업형 IoT가 이미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ESL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기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국내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 유럽 테스코(TESCO) 등 유통사에 공급하고 있다.

작년 ESL 시장은 1조1000억원, 2017년은 5조원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목원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ESL 시장에 대해서 "유럽 유통업체들이 투자를 미루는 상황"이라며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지만 열리는 속도가 더딘 것 같다"고 전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유럽의 경기가 아직 좋지 않다"며 "ESL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즈니스면 봤을 때는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밝혔다.

/양은정기자 eun0716

삼성전자 다문화·저소득 부부 9쌍 '합동결혼식' 재능기부

삼성전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저소득 부부를 위해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수원 지역 부부 9쌍을 위해 수원사업장에서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수원시에서 선정한 다문화·저소득 부부 9쌍을 위해 수원사업장 디지털시티 내 디지털 홀을 예식장으로 단장했다. 드레스, 한복, 메이크업, 사진 등 본예식과 피로연, 축하무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결혼 축하 선물로 호텔 숙박권과 삼성전자 제품 교환권을 제공했다.

/하준호기자

광효율↑ 전기료↓… LG LED 조명 출시

LG전자가 국내 LED 조명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ED 조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있어 2012~2014년에는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1월 LED조명이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발이 묶였던 대기업들이 직관형 등 그동안 진출할 수 없었던 LED조명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됨에따라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LG전자는 광효율을 높이고 무게는 반으로 줄인 LED 조명 4종을 4월 중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조명은 LED 직관등과 한개품인 LED 평판조명, 고천장등, 다운라이트다.

LED 직관등은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빛을 균일하게 낸다. 광효율 150lm/W(루멘/와트)로 기존제품보다 36% 높였고 소비전력은 17% 낮췄다.

LED 평판조명은 도광판(빛을 균일하게 전하는 아크릴판) 없어도 빛이 고르게 균질할 수 있도록 간접 광학 기술을 적용한 엣지형 조명이다.

/장성윤기자

희망퇴직 거부했더니… "과제 알아서 해라"

현대重, 직무역량 향상 교육에 무리한 과제 남발
'퇴출 프로그램' 주장에 사측 "퇴사압박은 사실무근"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60여명의 희망퇴직 거부자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 무리한 과제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거부자들의 과제 수행 정도를 평가해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희망퇴직 거부자 A씨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끝난 10일 황당한 과제를 받았다. 2014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의 자재 출고 유형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설계하라는 것. 기한은 일주일이었다.

A씨는 "특별팀을 만들어 한 달간 수행할 주제를 홀로 하라는 것"이라며 "과제 발표를 마친 뒤 들어온 답변은 해당부서와 인사팀의 트집 잡기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해당 부서의 팀장이 "바쁘니 알아서 과제를 정해 제출하라"는 조치가 떨어졌다. B씨는 "사실상 터무니 없는 과제니 팀장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상황의 부당함을 말했다.

우남용 현대중공업 일반직 지회장은 "못받은 대금 800만 달러에 대한 해결방법을 2주 안에 찾아오라고 하는 등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만들어 퇴직 거부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추심은 전문부서에 맡기는 게 통상인데 억지스럽다는 것이다. 우 지회장은 이어 "앞뒤 정황도 없이 갑작스럽게 징계위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계속되는 회사 압박에 질려 교육받던 2명은 퇴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에서 희망퇴직 거부자를 대상으로 두번째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이 교육 과정이 끝난 후 다시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중공업계에서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이 '퇴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대로 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다른 중공업계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을 몰아 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성과가 나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희망퇴직 거부자가 받은 과제. 종합점수 70점 미만의 과제는 자격박탈 한다고 쓰여 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노조 제공

사람의 위치에 반응해 광고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위치기반 O2O가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KT 제공

KT-GS홈쇼핑-GS리테일 마케팅 온-오프 넘나든다

사람의 위치에 반응해 광고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위치기반 O2O(Online to Offline)'가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KT에 따르면 KT와 GS홈쇼핑·GS리테일이 고객의 현재 위치와 시간, 고객 성향에 따라 다양한 쿠폰을 모바일로 발급해 주는 위치기반 O2O시범 마케팅을 15일부터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연결한 마케팅 방법으로 이 서비스는 KT가 강남역 주변에 구축한 '개방형 GIGA 비콘'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에서 GS홈쇼핑의 모바일 앱 GS SHOP을 통해 GS25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보내는 방식이다.

앱 설치 후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개방형 GIGA 비콘 존에 들어서면 GS25 쿠폰을 받을 수 있다.

GS리테일은 15일부터 점심엔 후식 아이스크림, 저녁엔 숙취해소음료 등 시간대별로 많이 찾는 제품 위주의 쿠폰을 제공하며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S SHOP 업데이트 이벤트'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사용자가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비콘 수신동의를 설정하면 추첨을 통해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정문경기자 hm0930@

[르포]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을 가보니

예사롭지 않은 건물에 "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오~"

13일 찾은 LG유플러스의 용산 신사옥은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최신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절감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첨단 건축물로 보였다.

건물 외곽부터 흔치 않은 건물 형태가 예사롭지 않았다. 톱니바퀴 형태도 디자인한 외곽은 에너지 절감과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위해 구현했다. 간접광선으로 실내를 밝게 하면서도 블라인드가 없어도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게 LG유플러스측의 설명이다.

용산 신사옥은 지상 21층, 지하 7층 규모다. 연면적 1만6486평으로 2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유연한 곡선과 공간감을 확보해 직원들이 개방감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구현됐다.

LG유플러스 신사옥은 스피드게이트와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를 적용해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능형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췄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건물
톱니바퀴 형태의 외곽에 에너지절감 디자인 구현 간접광선으로 실내 밝혀

시스템
빠른 엘리베이터 안내에 자동번호인식 주차장 등 사물인터넷 등 ICT 접목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직원 ID카드를 비콘단말에 터치하면 해당직원이 근무하는 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안내해 준다.

예를 들어 19층에 근무하는 홍보팀 직원이 스마트게이트에 ID카드를 대면 단말 화면에 6개 엘리베이터 중 19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번호가 뜬다. 또한 6개의 엘리베이터 중 2개는 '더블데크(복층)' 구조에서 한번에 최대 48명을 수용할 수 있다.

모든 사무공간의 회의실에는 비콘 단말과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콜래이션 환경이 구축됐다. 2층 회의실은 14개 회의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IT 기술을 접목해 사전예약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ILS(Intelligent Lighting Solution) 시스템이 적용됐다. ILS는 각 전등 전압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건물 사용자의 최적 조도를 맞추게 된다.

주차 공간의 설계는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어떻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배출된 공기를 어떻게 주변 지역에 해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됐다.

주차 공간에는 자동번호인식 주차관제 설비를 구현했다. 통신 단말기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RFID 등 주변기기를 차량에 탑재해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량관제솔루션(FMS)'이 적용됐다.

LG유플러스는 지상4층 이상은 업무시설로 지상3층 이하는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원 시설로 꾸몄다.

신사옥 1층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에게 문화시설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역민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100평 규모이며 전체 장서 규모는 4000권으로 용산주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hm0930@

LG유플러스의 용산 신사옥

박삼구 회장 주가조작 혐의 피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의 금호산업 금호고속 인수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박 회장과 임원들이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끌어뜨리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금호산업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박 회장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금호그룹 임직원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속칭 '누르기방식'으로 매도 주문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이다.

금호산업 주식 2300주를 보유한 강모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리조트·금호타이어 임원 20여명을 이달 초 고소했다.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다.

강씨는 "올해 2월26일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자 한일우 금호산업 사장(3000주)과 금호건설 부사장·상무(각각 2000주)가 일제히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다음날 신세계의 인수의향서 철회 후 금호산업 주가는 13.3% 급락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을 의심했다.

강씨는 "피고소인들은 금호산업의 주가를 부양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주가 시세를 조정해 주주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강씨는 금호 임원들이 2014년 11월~올해 2월 주식을 매도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했을 뿐 주가조작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소리기자

'中이마트 참패' 정용진, 책임은 회피

중국현지화 실패로 사실상 철수 수순 10개점만 남아… 베트남 진출도 의문

정용진(48·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9년 12월 신세계 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자리에 오른 지 5년이 넘었지만 정 부회장은 다른 재벌 3·4세 들과 달리 이렇다할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룹의 핵심 사업인 이마트 사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호기롭게 진출했던 이마트 중국 사업은 막대한 영업적자를 보면서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이를 만회하고자 최근에 베트남 진출을 선언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마트는 1997년 상하이 취양점에 중국 1호점을 오픈한 후 매장을 27개까지 늘렸지만 현지화 실패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자 폐점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말 톈진 지역에서 운영하던 아오청점, 광화차오점, 메이장점, 홍차오점 등 4개 점포의 영업을 종료하면서 현재 중국 내 이마트 점포는 상하이 8개점, 우시와 쿤산 각 1개점 등 총 10개만 남았다.

남아있는 점포도 M&A(인수·합병)나 매출 부진 점포 폐점 등 다각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중국 5개 법인은 2013년 당기순손실 5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920억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은 그동안 중국 사업에서 현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시장에서 쓴맛을 본 정 부회장은 이를 만회하려는 듯 최근엔 뉘늦게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오는 12월 베트남 고밥지역에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2012년 말 베트남 진출을 계획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특성상 규제, 인허가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업계 3위인 롯데마트의 해외 성적과 비교하면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은 더욱 참담하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10호점까지 오픈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점포 3개를 더 내기로 했다.

국내 이마트 사업도 내수부진과 의무휴업을 핑계로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의 2012년 이후 신규 점포를 뺀 기존점들의 매출은 2012년 10조900억원, 2013년 10조800억원, 2014년 10조800억원 등으로 3년 동안 줄거나 정체된 상태다. 이마트의 2013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6.5%, 20.7% 하락했다.

사실상의 경영 실패지만 오너인 정 부회장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 2013년 초엔 연봉 공개를 피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내놓기도 했다.

장흥대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권한은 누리지만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채은다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프랑스 정통 빵 맛 보세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파리바게트 종로시그니처점에서 모델들이 새로 출시된 'The 맛있는 프랑스 빵'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百, '스마트픽' 전국 확대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스마트픽 서비스를 전국 30개 점포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8개 점포에서 노원점, 수원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을 제외한 모든 백화점 점포에서 엘롯데 또는 롯데닷컴을 통해 스마트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스마트픽 서비스는 롯데닷컴이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계열사와 연계해 2010년부터 선보이는 서비스로 PC나 모바일을 통해 엘롯데, 롯데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롯데백화점은 스마트픽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 품목 수도 기존 1만개에서 4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매 후 교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됐다. 같은 브랜드 상품으로 교환하면 별다른 취소 절차 없이 교환하고 싶은 상품과의 차액은 추가로 결제하거나 돌려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스마트픽으로 구매한 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때 고객이 온라인에 접속한 후 주문을 취소하고 매장에서 다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스마트픽 서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픽업데스크와 픽업락커도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픽업데스크는 지난해 11월부터 본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내에 4개 점포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언제든 원하는 시간대에 찾을 수 있는 픽업락커도 세븐일레븐 등 롯데의 유통계열사들과 연계해 연내 30개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18억 무슬림 입맛 잡아라"

식품업계, '할랄' 인증 등 불황 속 블루오션 노려

식품업계의 블루오션 '할랄(Halal)'이 식품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할랄식품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할랄 식품 시장은 18억 무슬림 인구를 겨냥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할랄 식품 시장은 2012년 기준 1196조원(1조880억 달러)규모로 세계 식품의 17%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2018년엔 1758조원(1조6260억 달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일컫는다.

인증 과정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슬림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올 7월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이슬람 출신 선수와 임원단 심판진에게 할랄 도시락과 뷔페를 공급한다. 9월에는 인천국제공항 푸드코트에 할랄 코너를 열기로 했다.

농심은 할랄신라면을 중심으로 주요 이슬람 국가 라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 2011년 4월, 부산공장에 할랄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할랄신라면'을 출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할랄신라면의 인기에 힘입은 농심은 할랄 관련 제품을 늘려 시장공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농심은 지난해 말 신라면과 김치라면, 채식주의순(용기면)에 대한 할랄인증을 추가로 획득해 수출하고 있다.

풀무원은 2013년 생라면 브랜드 '자연은 맛있다'로 국내 라면 최초로 자킴(JAKIM)의 인증을 받고 이슬람 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JAKIM은 이슬람 국가의 할랄 허브(HUB)를 목표로 범 정부차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으로 국제 최고 권위의 할랄 인증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우유와 빙그레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수출업체로 등록돼 올 상반기에 처음 유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 3종과 메로나 4종 등 제품 7종이 JAKIM 인증을 받았다.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라운제과는 2013년에 대표 스낵제품 4종(죠리퐁·콘칩·못말리는 신짱·카라멜콘과 땅콩)에 대해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싱가포르의 Muis(Majlis Ugama Islam Singapura)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할랄 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K팝과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무슬림 시장에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매우 높아 잠재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기업의 할랄 인증과 진출이 늘어날수록 무슬림 시장의 먹거리에서 한류 바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illegible]기자 [illegible]

놀부, 커피·치킨·분식 분야 진출

외식기업 놀부(대표 김준영)가 올해 커피·치킨·분식 분야에 도전장을 냈다.

놀부는 지난 1월 인수한 '셀러빈 스커피'를 복유럽 감성의 고품질 커피 전문점 '레드머그커피'로 재단장해 이달 중 직영 1호점을 개점한다고 13일 밝혔다. 레드머그커피는 커피와 함께 토스트, 케이크 등 베이커리 메뉴를 마련한다.

놀부는 다음 달 1일에는 최근 인수한 국물 떡볶이와 수제 튀김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 '공수간'도 신규 브랜드로 선보인다.

2분기에는 복고 스타일의 치킨을 맛볼 수 있는 '놀부 옛날통닭'도 출범한다.

놀부 옛날통닭은 소자본 치킨 호프매장을 콘셉트로 창업 진입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놀부는 해외 사업 부문에선 2015년까지 중국 전역에 가맹점 500호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신의
은퇴는
쾌청합니까?
퇴직연금과 체크카드가 만났습니다
금융수익에 추가 적립혜택까지
금융라이프를 시작하세요
able i max Card
퇴직연금상품
연 12%
70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i max
현대증권

"국산 수제 맥주 맛 보세요" 13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국산 수제 맥주 2, M 제일맥주 과 'W 아이피에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SKT 제친 '황제주'
아모레퍼시픽 시총 8위 '껑충'

장중 최고가 경신 383만원

황제주로 등극한 아모레퍼시픽이 네이버와 SK텔레콤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8위까지 올라섰다.

13일 아모레퍼시픽은 전일 대비 14만7000원(4.15%) 오른 37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개장 초 383만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 시가총액 7위로 오르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21조6296억원으로 7위인 포스코와의 차이는 5159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아모레G도 156만30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시가총액 순위 21위에 올랐다.

올 들어 시총 순위 13~14위권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은 전거래일 10위권에 진입한 뒤 이날 네이버, SK텔레콤마저 제쳤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이다. 이날 매수창구 1순위엔 골드만삭스가 이름을 올렸다.

서경배 회장(52·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시상 처음으로 '국내 상장 주식 부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세의 근원지는 중국이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매출 4조 7119억원, 영업이익 6591억원으로 각각 전년 보다 21%, 40.3% 증가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만 467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화수, 이니스프리, 라네즈, 마몽드 등 대표 브랜드가 매출 성장에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1.4%였다. 중국인 매출이 80%를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을 합산하면 대중국 매출액은 약 1조원으로 실질 중국 내 점유율은 3%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면세점 채널에서 70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인 고객 수는 203% 증가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두 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시세이도를 추월, 글로벌 화장품 업체 중 시총 4위로 올라섰다. 다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화장품업체 중 독보적인 성장성을 지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가 예상된다"며 "향후 영업이익은 3년간 연평균 28% 성장해 2017년에는 글로벌 3위인 바이어스도르프 이익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조정하며 400만원대가 전망되고 있다. 액면분할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는 유통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다. 신주권은 다음달 8일 상장될 예정이다. 1분기 깜짝 실적도 기대된다.

/김수정기자 ks0215@metroseoul.co.kr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자료:한국거래소]

순위	종목명	현재가	시가총액(백만원)
1	삼성전자	1,479,000	217,865,719
2	현대차	167,000	36,786,172
3	SK하이닉스	44,200	32,177,705
4	한국전력	43,300	27,797,045
5	삼성전자우	1,161,000	26,509,609
6	현대모비스	231,000	22,486,432
7	포스코	254,000	22,145,456
8	아모레퍼시픽	3,700,000	21,629,641
9	네이버	652,000	21,491,647
10	SK텔레콤	262,500	21,195,749

CJ, 제일제면소·계절밥상·빕스 오픈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은 수원 광교에 있는 대형몰 아브뉴프랑에 자사 브랜드 제일제면소·계절밥상·빕스를 잇따라 개점한다고 13일 밝혔다.

면요리 전문점인 제일제면소는 이날 문을 열고 각종 면 요리와 수제 주먹밥, 튀김, 전골 요리, 도시락 등의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교점은 제일제면소의 8번째 매장으로 총 117석 규모다.

7일에는 계절밥상이 문을 연다. 총 220석 규모의 광교점은 13일에 오픈한 건대점에 이어 계절밥상의 11번째 매장이다. 농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계절장터'와 부추, 당귀, 케일 등 신선한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계절텃밭 등을 구성하고 광교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메뉴도 준비한다.

다음 달 1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 빕스가 문을 열 예정이다. 빕스의 89번째 매장으로 총 204석 규모에 방과 이벤트홀 등 별도 공간을 갖춰 단체 모임에도 적합하다.

네파, 등산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네파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이젠벅(대표 박창근)이 설계상 하자가 발생한 등산화에 대해 자발적인 무상 교환·수리 조치를 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젠벅 경등산화 'TERRA SHOCK (BAB7652, BAG7652)'를 신고 걷던 중 등산화 발목 부위의 고리에 반대쪽 신발끈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발목 부위에 위치한 고리가 0.5㎝ 간격으로 벌어져(개방형 구조) 반대쪽 끈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고리 부분의 열린 각도가 과다해 반대쪽 신발끈이나 바지 끝단 등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제품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파 측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판매된 제품 87족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수선을 원치 않을 경우 동일가의 타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해 주기로 했다.

JTI코리아, 캡슐 수퍼슬림형 '메비우스'

JTI코리아의 프리미엄 담배 브랜드 '메비우스(MEVIUS)'가 캡슐 수퍼슬림형 제품 '메비우스 LSS 옵션 에보 원(MEVIUS LSS Option Evo1)'을 출시했다.

공기 중 담배 냄새를 줄여주는 LSS(Less Smoke Smell) 테크놀로지와 메비우스만의 퍼플 캡슐이 적용돼 풍부한 맛과 부드러움을 전달하는 올인원 제품이다.

특히 JTI코리아는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캡슐 수퍼슬림형 제품 선호에 따라 이번 신제품을 출시했다. 메비우스 LSS 옵션 에보 원의 소비자 가격은 4500원(니코틴 1㎎·타르 0.1㎎)이다.

아웃도어 "키즈로 불황 뚫는다"

제품군 확대 활발
합리적 가격대 갖춰야

성장세가 한 풀 꺾인 아웃도어 업계가 키즈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캠핑 등 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키즈용 제품이 주목받자 신규 라인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라인을 확장해 브랜드화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밀레는 이번 시즌 키즈 라인 출시 후 수量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 대비 100% 늘렸다. 키즈 라인은 재킷, 뷰 등 주요 품목에 한정해 소량으로 선보였으나 올해부터 재킷은 물론 우비, 어린이 수영복, 스커트 및 팬츠류 등 제품군을 다양화했다.

네파는 성인복과 같은 디자인으로 키즈 제품을 선보였던 것에서 제품군을 확대해 키즈 브랜드를 론칭했다. 5~12세를 메인타깃으로 전개하며 하반기부터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단독 매장도 낸다.

지난해 가을 시즌부터 키즈 라인을 론칭한 K2 울프스킨은 추성훈·추사랑 부녀를 전속 모델로 기용해 패밀리 아웃도어룩을 제안하는 등 가족 단위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오프로드·센터폴 등도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부터 키즈 아웃도어 시장에 진입했다.

업계는 레저 문화 확산과 함께 기존 아웃도어 의류를 즐기던 성인들이 키즈 제품까지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키즈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웃도어 키즈 라인의 성공은 제품에 대한 가격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키즈 전용 제품은 소위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는 가격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아웃도어 전문 기업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탄탄한 기능성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갖추어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아웃도어 시장은 7조 3000억원 규모,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수준으로 매년 30% 대로 성장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가 둔화됐다.

/김수정기자 ks02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 50만원 지원

복지부 등 8개 부처 협력 유·아동 중독 진단척도 개발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치료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의 치료비가 제공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관계부처는 13일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예방·치유 정책을 담은 "2015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14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교사·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게임 과몰입 예방·지도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중독의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지역 상담기관에서 SNS 게임 등 유형별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게임이나 인터넷에 극도로 몰입하다 우울증, 사회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공존질환에 빠진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존질환 검사를 진행하고, 부모 등의 미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협력병원(149개)과 연계해 치료에 나선다. 치료비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50만원 이내, 일반 계층은 3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미래부와 복지부 등 8개 유관부처는 '인터넷 중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포럼도 열어 기업 참여, 사회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알아보는 진단 척도도 개발해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 교구도 개발해 일선 교육현장에 보급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여부를 자가 진단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되며 지역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도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난다.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 시 심야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허용하는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만 10~59세 스마트폰 이용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성인(11.3%) 위험군의 약 2.6배에 달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도 전체 12.5%로, 유·아동(5.6%), 성인(5.8%)보다 월등히 높았다.

/서예진 기자 gracia@metroseoul.co.kr

쉐라톤인천호텔 '책의 수도' 지정 이벤트 중식당 '유에'서 구연동화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는 유네스코가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을 지정한 기념으로 '유에, 책을 만나다'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중식당 '유에'는 어른들을 위해 게살수프, 불보재와 관동기 등으로 구성된 5가지 코스 요리를, 아이들을 위해서는 망고소스 새우요리와 북경식 돼지고기 탕수육, 육장면 등으로 구성된 3가지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식사 후에는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구연 동화를 들려준다.

'유에, 책을 만나다' 프로모션은 25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로 선착순 12 가족에 한해 예약을 받는다. 가격은 어른 5만5000원, 아이 3만5000원(봉사료 및 세금 포함)이다. 문의 032-835-1702.

예방부터 간병까지… 치매의 모든 것

양천구치매지원센터 개소 7주년 기념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최경규·사진)가 오는 21일 개소 7주년 기념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양천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 전문자원봉사자 및 치매예방에 관심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걷는 것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치매 예방과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한다.

건강강좌뿐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건강센터 작품 전시를 비롯해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1부에는 치매지원센터 '금빛지기' 전문봉사단의 감사패 수여, 치매환자 가족의 치매극복 수기 발표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늘푸른화합단 공연과 기타동아리 회원의 기타연주 '희망의 하모니'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 최경규 양천구치매지원센터장(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이 강사로 나서 '치매' 걷는 것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수분 섭취와 '걷기 운동' 등 사전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양천구청 법률튜터 송진섭 변호사가 '치매 환자를 위한 후견제도'라는 주제로 치매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 등에 대해 강연한다.

2008년 5월 7일에 개소한 양천구치매지원센터는 현재 양천구 60세 이상 어르신의 42%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 이외에도 인지건강센터에서 기억력 훈련과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미술·원예치료, 치매예방교실, 걷기운동 등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치매가족의 부담감과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가족모임 운영과 방문간호를 통한 사례 관리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치매관리도 힘쓰고 있다.

치매전문자원봉사단 '금빛지기' '가가호호 기억친구' 운영을 통해 독거치매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 활동도 한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노인실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실종된 치매 어르신의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기(GPS)와 배회어르신 인식표 발급 등의 안전서비스 지원과 치매치료비 지원 등 양천구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치매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2698-8680~1

/기획전기사

노랑풍선 '집꾼커플' 이서진·최지우 광고모델 재계약·새 발탁

직판여행사 노랑풍선(대표 고재경·최명일)은 지난 해 자사 광고 모델로 활동한 배우 이서진과 재계약을 맺는다고 13일 밝혔다.

노랑풍선은 또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할배' 그리스편에서 이서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류스타 최지우를 광고모델로 추가 발탁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

지난 한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이서진을 얼굴로 내세워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한 노랑풍선은 국내 최고의 여행기업에서 아시아권으로도 도약하기 위해 이서진과 최지우를 동시 기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두 사람의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여행기업 노랑풍선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눈꽃빙수 맛보세요"

카페베네가 13일 서울 카페베네 서대문경찰서점에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7주년 스페셜 신메뉴 '눈꽃빙수' 3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강강술래 "온 가족 공연나들이 가세요"

'드로잉 피노키오'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티켓을 증정하는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명보아트홀 지하1층 다온홀에서 상연되는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티켓(1인2매)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봄맞이 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선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봄나들이세트(한우불고기6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를 33%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한우사골곰탕(500ml 3팩 6인분)과 육개장(500ml 3팩 6인분), 갈비탕(500ml 3팩 6인분)으로 구성된 '보양식 삼등이세트'도 50% 할인된 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김보라 기자 bora@

형만 한 아우 없다?… 편견 깬 시리즈 아파트

단지구성·평면 등 상품 업그레이드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속담이 분양시장에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1차 아파트에서 검증된 브랜드, 입지, 상품성,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다음 2·3차 분양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특히 시리즈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하며 수요자 선호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5차에 걸쳐 총 3600여 가구의 '래미안' 아파트가 공급된 마포 공덕동에서는 래미안이냐 래미안이 아니냐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질 정도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후속 분양 단지가 전편보다 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풍 속 시리즈 아파트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달 반도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과 '6.0'은 1순위에서 각각 최고 487대 1과 4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동탄2신도시 최고 기록이다. 6차까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상품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GS건설이 이달 초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역시 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우며 23.8대 1로 마감했다. 지난해 1차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세운 평균 6.5대 1의 기록을 가볍게 넘어선 것이다.

아이에스동서가 울산 효재동에 선보인 '트리쉐시티 에일린의뜰2차'도 울산지역 역대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2만2314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이전 최대 청약자 단지는 '문수산 동원로얄듀크'로 1만6327명이었다.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6차까지 걸쳐 공급한 시리즈아파트,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모델하우스 내부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시리즈 아파트는 전편의 장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며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또 시리즈 분양을 예고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음 달 '거제 아이파크'에 이어 다시 한 번 '거제 2차 아이파크'의 완판에 도전한다. 경남 거제시 양정동과 문동동에 각각 1단지와 2단지로 구성되며, 전체 1279가구 규모다.

앞서 4월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약 100만㎡ 부지에 주거단지, 공원, 학교,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다. 5차까지 공급되면 약 7000가구의 메머드급 단지가 완성된다.

반도건설도 내달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Ca-01블록에서 '김포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4차'를 분양한다. 최근 성공리에 분양된 3차에 이어 공급되는 단지로,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 경남 창원 감계지구에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먼저 분양된 1·3·4차와 함께 총 4213가구의 힐스테이트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남해고속도로와 KTX 창원역이 가깝다.

/서선미기자 sun0120@metroseoul.co.kr

아현역 푸르지오 견본주택 /대우건설 제공

모델하우스 열었다 하면 수만 명 운집

요즘 건설사가 모델하우스를 열면 방문객이 북새통이다.

대림산업이 지난 10일 문을 연 인천 남구 서창동에 있는 'e편한세상 서창' 견본주택에는 3일간 총 2만5000여명이 몰렸다. 견본주택에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30~40대 부부가 주를 이뤘다. 내방객 상담수가 청약조건을 꼼꼼히 따졌다.

같은 기간 대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공급한 '아현역 푸르지오' 견본주택에도 총 2만5000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이 회사 안승원 분양소장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추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가 뛰어나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견본주택 역시 지난 9일부터 주말까지 4일간 약 2만5000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분양관계자는 "주말 내내 분양상담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30~4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대건설의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2차' 견본주택에도 연기가 후끈했다. 지난 주말 1만7000명이 관람했다. 수요자들은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입구에서 100m 이상의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내부 유니트 입장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관람할 수 있었다.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 실수요자 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방문객들은 청약상담 순서를 기다리며 분양조건과 설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등 청약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한신공영의 '시흥 배곧 한신휴플러스' 역시 구름 인파였다. 지난 10일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3일 동안 약 2만1000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배곧신도시에서는 청약제도 완화 시행 첫 단지로 청약 대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윤경환기자

서울도 오늘부터 복비 '반값'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짜리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선옥기자

GS건설 '신금호파크자이' 샘플하우스 17일 오픈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13구역을 재개발한 '신금호파크자이'의 샘플하우스를 오는 17일 오픈한다.

현장에 마련된 샘플하우스에서는 전용면적 59㎡A, 84㎡A~D, 114㎡ 등 6개 주택형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지하 3층, 지상 21층 10개동 전체 1156가구 중 8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59~114㎡로 다양한 주택형이 공급되고, 1~20층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5·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과 3호선 금호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의 도로망도 갖췄다.

사립초등학교인 동산초교와 바로 접해 있으며 주변으로 무학중, 금호여중, 광희중, 한양사대부고, 무학여고 등이 밀집했다. 응봉근린공원, 응봉공원, 금호산공원이 가깝다.

신금호파크자이 조감도.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내부에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수납공간이 적용되고, 특히 김치냉장고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계약금 10% 2회 분납 조건이며 1회차에는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입주는 2016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박선옥기자

metro entertainment

호구의 사랑 순정남 **최 우 식**

배우 최우식(25)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맑은 미소를 지녔다. 선으로 그려놓은 듯한 깔끔한 이목구비는 순수한 면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그는 "외모 때문에 캐스팅에 제한 받은 적이 많았다"며 순수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일부러 안 착하다고 말해요"

'순수한 이미지' 캐스팅 제한 고민
원톱 주인 우려… 댓글이 큰 힘 돼
차기작, 조연도 잘 어울리면 OK

"A라는 배역으로 미팅을 가도 B로 역할이 바뀐 적이 있어요. 원래 '기인'에 출연한 후로는 화보를 찍어도 고민하는 표정, 시크함을 연출하죠. 순수하게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 흡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는 걸 보면 안 어울려요. '왜 마셔요~'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다녀요.(웃음)"

지난 3월 종영된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은 최우식의 매력을 온전히 담아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순수한 남자 강호구로 분한 그는 출연을 확정하기 전 업계의 우려를 받았다. 그러나 웹툰 원작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로 원톱 주연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댓글은 잘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주연이다 보니 반응이 궁금했죠. 처음 '호구의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이 많았어요. 왜 검증되지 않은 배우를 쓰느냐, 최우식이 어떻게 16부작을 끌고 갈 것인지의 문제죠. 그런데 댓글이 큰 힘이 됐어요. 싱크로율이 좋다는 글을 보면 통쾌했죠."

강호구처럼 모태 솔로는 아니지만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는 그는 "신선한 여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다.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웃음) 연애를 못 하니까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했죠. 신선한 여자와 소개팅을 하고 싶어요. 여자 연예인들은 정말 다 예쁘거든요. 일반인으로 범위를 정하는 건 아닌데 생각하지 못했던 여성분이 소개팅에 나온다면 좋을 거 같아요. 또 웃음 코드가 맞았으면 해요. 제가 개그감이 정말 없거든요."

강호구와 비슷한 젊은 여유로운 성격이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자의 여유죠.(웃음) 주변에서 '집안 배경이 좋니', '아버지 뭐하시니'라고 농담 삼아 묻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얼굴 살자이 나는 형도 있어요. 부모님과 달리 형은 밖에서 제 자랑을 해요. 여자 연예인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부러워해요. 저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형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죠."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간 최우식은 연출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사귄 여자친구의 권유로 배우 오디션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처음 치른 오디션에서 합격한 그는 이후 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로 옮겨 활동 중이다. JYP 소속 배우로서 "대형 기획사의 여유"를 이야기 했다.

"이젠 가수와 배우의 활동 범위가 나뉘져 있지 않죠. 배우가 국내 3대 기획사에서 가수들과 함께 활동하는 건 저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형 기획사는 배우가 원하는 방향을 존중해주는 여유가 있어요. '호구의 사랑'을 통해 주연을 했다고 차기작도 꼭 주연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닌 거죠. 앞으로도 전 저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면 조연이라도 할 겁니다."

/탄호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JYP Entertainment 제공
디자인/[illegible]

star bag

첫 전국 투어 개최

지난해 첫 솔로앨범을 발표했던 가수 **정동하**가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한다. 다음달 16일부터 7월까지 '2015 정동하 전국투어 콘서트 #JUNGDONGHA_CON'을 진행한다. 첫 공연은 고양시에서 열리며 부산(5월 23일), 인천(6월 14일), 창원(6월 21일), 수원(7월 4일)으로 이어진다.

광고계도 접수

최근 예능과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배우 **강예원**이 광고계까지 접수했다. 평소 건강하고 균형잡힌 몸매로 주목받았던 강예원은 스포츠웨어 브랜드 슈퍼INC의 모델로 나섰다고 소속사 SM C&C가 밝혔다. 슈퍼INC는 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등 워터 액션 스포츠를 위한 기능성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음원차트 '싹쓸이'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가요계에 성공적으로 컴백했다. 박진영은 12일 1년 7개월 만에 새 디지털 싱글 앨범 '24/34'의 타이틀곡 '어머님이 누구니' 음원을 공개했다. 신곡은 음원 발표 하루만인 13일 오전 8시 멜론, 엠넷, 벅스, 올레뮤직 등 주요 9개 음원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자각몽 꾸는 남자 변신

고수가 지난 6일 영화 '루시드 드림'(감독 김준성)의 첫 촬영을 마쳤다. 3년 전 아들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자각몽(루시드 드림)을 통해 단서를 발견하는 범죄 스릴러다. 고수는 열혈 기자이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대호 역을 맡았다. 하반기 개봉 예정.

마지막 황녀 아닌 '엄마'

musical review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문혜영 '1인2역' 명품 연기

■덕혜옹주

시간이 흐를 수록 훌쩍이는 관객이 늘어 갔다. 뮤지컬 '덕혜옹주'는 조선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일대기가 아닌 엄마와 인간으로서의 덕혜를 담아낸다. 부모가 있거나 자신이 부모인 관객이라면 몰입하기 충분하다.

덕혜옹주는 고종의 고명딸이다. 독살로 아버지를 잃은 덕혜는 14세에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이후 말을 잃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1931년 일본 귀족 다케유키와 결혼했지만 병이 악화돼 1946년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정혜는 덕혜옹주의 유일한 혈육이자 딸이다. 정혜는 1956년 8월 26일 자살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기고 실종됐다.

뮤지컬 '덕혜옹주'는 실종된 딸을 찾는 아빠 다케유키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오프닝 곡 '1956.8.26'은 강렬하고 비장하다. 극 말미 다케유키는 극진히 사랑했던 딸이 사라진 이유를 깨닫는다. 그것은 '혈맙'이다. 정혜는 조선인의 피가 섞였단 이유로 멸시 당한다. 덕혜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정혜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다케유키는 딸을 지키기 위해 정신병을 앓는 덕혜를 병원에 가둔다.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닮는 다는 말이 있다. 아빠의 사랑에도 정혜 역시 엄마의 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덕혜옹주의 비극적 삶이 관객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낯선 곳에 버려져 정신이 피폐해가지만 딸만은 지키려는 엄마 덕혜의 몸부림이 관객의 눈시울을 적신다. 배우 문혜영은 뮤지컬 '덕혜옹주'의 작가이자 덕혜·정혜 1인2역을 소화했다.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캐릭터를 구분하며 열연했다. 조선 마지막 황녀의 고독부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정혜의 심경까지 폭넓은 감정을 무대에서 쏟아 낸다.

크기가 다른 몇 개의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극을 전개한다. 조형물은 공간을 구분하는 용도 외에 덕혜·정혜·다케유키의 단절된 가족 관계를 상징하며 먹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뮤지컬 '덕혜옹주'는 6월28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우아하고 세련된 프렌치 멜로

film review

설렘과 긴장, 엉켜버린 사랑의 감정 담아

■나쁜 사랑

이토록 비극적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영화 '나쁜 사랑'은 운명 같은 사랑일지 모른다는 믿음이 깨진 순간 엮여버린 연인의 실타래를 쉽게 끊을 수 있는지 질문한다. 흔히 말하는 불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영화는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감정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준다.

영화의 주인공은 두 자매와 한 남자다. 집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차를 놓쳐버린 남자 마크(브누아 뽀엘부르드)는 우연히 만난 여자 실비(샤를로뜨 갱스부르)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다. 그러나 섣불리 감정에 취하지 않은 두 사람은 재회를 약속하며 긴 인연을 바라본다. 그러나 계획의 약속은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다. 운명이 될 것이라 믿었던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다시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스쳐지나가는 인연 속에서도 감정은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싹튼다. 실비가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간 동안 마크는 또 다른 여인 소피(키아라 마스트로얀니)를 만나 사랑을 느끼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다. 그 순간 운명은 지독한 장난을 벌인다. 소피가 늘 이야기 하는 언니가 바로 실비인 것이다. 마크는 소피와의 결혼식 날 마침내 실비를 다시 만나게 된다. 오래 전 느꼈던 강렬한 끌림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마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든다.

누군가는 '나쁜 사랑'의 시놉시스를 놓고 익숙한 막장드라마를 떠올릴지 모른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영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멜로와 스릴러를 자유롭게 오가는 다채로운 연출 스타일 때문이다. 비포 선라이즈 처럼 떨리는 설렘을 감성적으로 담으며 시작하는 영화는 세 인물의 운명이 뒤엉키면서부터 서서히 미지막 스타일의 긴장감 넘치는 형식으로 변화한다. 설렘과 끌림, 긴장과 스릴 이 모든 감정은 절제된 연출을 통해 한층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으로 관객 마음을 파고든다.

영화가 질척거리는 막장 스토리가 되지 않은 데에는 배우들의 열연도 큰 힘을 발휘한다. 샤를로뜨 갱스부르와 키아라 마스트로얀니의 상반된 매력,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고뇌하는 브누아 뽀엘부르드의 연기는 관객의 공감대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영화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이들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은 늘 쉽게 엉키게 마련인 복잡한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4월 16일 개봉.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빠른 전개 몰입도 강한 영화"

손현주 스릴러 '악의 연대기'로 스크린 컴백

배우 손현주(사진)가 스릴러 영화 '악의 연대기'(감독 백운학)로 스크린을 찾는다.

'악의 연대기'는 특진을 앞두고 기람을 죽이게 된 최반장(손현주)이 시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가 돼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손현주는 "시나리오를 정말 재미있게 봤다. 숨바꼭질 같은 느낌이 였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숨바꼭질 과의 비교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손현주는 "'악의 연대기'는 진부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 전개가 정말 빠르다. 그만큼 몰입도가 강한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손현주는 촬영 직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촬영이 시작될 시점에 조그맣게 갑상선 암이 발견됐다.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자마자 촬영장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손현주 외에도 마동석, 박서준, 최다니엘 등이 출연한다. 다음 달 14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간부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예술위 압력에 서울연극제 삭발 항의

"연극인들을 철거민 대상으로 생각한다."

김태수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감사가 13일 동숭동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갈등은 지난 7일 예술위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연극제 측은 이날 "대학로의 주인은 연극인이라고 자부한다"며 "자본의 논리와 달리달락 편가르기 식으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꾸로 가는 나라에 욕이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연극제는 감사원에 대극장 안전점검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이번 주내로 예술위와 공연예술센터 진행부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된 대극장 구동부 모터 제조사에는 모터 2개의 결함 때문에 대극장을 폐쇄하고 무대에 설치된 60개의 모터를 모두 검사하는 게 합당한 조치인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공개했다.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집행위원회 박장렬 위원장, 김태수 감사, 공재민 사무국장은 삭발을 통해 예술위 조치에 항의했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과 아트원씨어터 등 소극장 사용을 보이콧하기로 하고, 집행위원회 임시 사무처를 아르코 극장 밖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더 세졌고, 더 깐깐해진 리얼검증이 돌아왔다
tcast

'21세 영건' 스피스, 그린재킷을 입다

18언더파 역대 최저타 타이… 케빈 나, 12위 내년 출전 티켓 획득

영건 조던 스피스(21)가 강호들을 물리치고 골프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의 그린재킷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4위 스피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열린 제79회 마스터스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4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합계 18언더파 270타다.

특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2013 US오픈 챔피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마스터스에서 세차례 우승한 필 미켈슨(미국) 등 강호들에게 단 한 차례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생애 첫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며 상금 180만 달러(약 19억7000만원)를 받았다.

텍사스 출신의 스피스는 2012년 프로에 데뷔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마스터스에서 만 21세 8개월 16일의 나이로 우승해 역대 두 번째로 어린 챔피언으로 기록됐다. 역대 최연소 우승자는 우즈(당시 21세 3개월 14일)다.

4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스피스는 10번홀에서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동반 플레이어 로즈와의 격차를 6타차로 벌렸다.

15번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스피스는 18번홀에서 1.5m 거리의 파 퍼트를 놓쳐 72홀 최저타 기록을 깨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스피스의 18언더파 270타는 1997년 우즈가 우승할 때 세운 최저타 스코어와 타이기록이다.

경기 후 스피스는 "믿을 수 없는 한 주였다. 꿈이 실현됐고 아직 충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기뻐했다.

스피스와 우승 경쟁을 펼쳤던 로즈와 미켈슨은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쳐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렸던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4위(12언더파 276타)에 올랐다.

재미동포 케빈 나(32)는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12위에 올라 공동 12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배상문(29)과 노승열(24·나이키골프)은 각각 공동 33위(이븐파 288타), 공동 38위(1오버파 289타)로 대회를 마쳤다.

/정선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마스터스의 전통에 따라 전년도 우승자인 버바 왓슨이 13일(한국시간) 제79회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한 조던 스피스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글' 풍년이요! 47개 신기록

제7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대회 사상 이글 최다 신기록이 작성됐다.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현지시간)에만 무려 17개의 이글이 쏟아져 전날까지 나온 30개까지 총 47개의 이글이 나왔다. 이는 1991년 작성된 종전 최다 기록(37개)을 가뿐히 넘어선 기록이다.

2번, 8번, 13번, 15번 등 4개의 파 5홀 중에서 가장 쉬운 13번 홀에서 이글 20개, 15번 홀에서 9개가 쏟아졌다. 2번 홀에서는 5개, 8번 홀에서는 7개의 이글이 나왔다. 나머지 3개는 3번, 14번 등 파 4홀에서 생산됐다.

더스틴 존슨(미국)이 2라운드에서 하루 세 개의 이글을 기록했고, 일본의 마쓰야마 히데키는 2,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에서도 13번 홀에서 3개나 낚았다. 필 미켈슨, 모건 호프먼(미국),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대니 윌렛(잉글랜드)도 2개씩 이글 맛을 봤다.

특히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버바 왓슨(미국)은 4라운드에서만 2번, 13번 홀에서 이글 2개를 낚는 저력을 보였다.

한국(계) 선수 중에는 배상문(29)과 재미동포 케빈 나가 각각 1개씩 행운의 이글을 누렸다.

/정선문기자

잉글랜드의 존 케이시가 13일 열린 마스터스 골프 4라운드 2번홀에서 이글을 기록하며 갤러리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강정호 ML데뷔 첫 안타 "좀 늦었죠"

밀워키전 세번째 타석서 — 추신수 대타 출격 사4구 2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7번째 타석 만에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쳐냈다.

강정호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2로 앞선 7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때려냈다. 밀워키 선발 카일 로시를 상대로 5구째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기술적으로 공략해 유격수 키를 넘겼다.

앞선 두 타석에서는 모두 밀워키의 3루수 아라미스 라미레스의 호수비에 걸려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9회초 무사 1루 찬스에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서는 밀워키의 네 번째 투수 타일러 손버그를 상대로 148㎞짜리 직구를 공략했지만 배트 윗부분에 맞으면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루수 수비에서는 3회말 무사 2루에서 상대 투수 로사의 스리번트 타구가 3루 선상으로 굴러가자 선상 바깥으로 나가 파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내는 등 안정감을 보였다.

이날 4타수 1안타를 기록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25(8타수 1안타)가 됐다. 피츠버그는 9회초에만 워커의 3점포 등 무려 6점을 뽑아 밀워키를 10-2로 꺾었다.

동 통증으로 전날 결장한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대타로 출장해 사4구 2개를 얻어냈다.

추신수는 4-4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8회말 2사 1, 2루 찬스에서 9번 델리노 드실즈의 타석 때 대타로 들어서 몸에 맞는 볼을 얻어냈다. 이어 연장 10회말 2사 1, 3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시즌 첫 볼넷을 얻어냈다. 연장 13회말 1사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경기는 휴스턴의 6-4 승리로 끝났다. /김민준기자

소속팀 복귀 지소연 1도움 첼시 레이디스 FA컵 4강행

지메시 지소연(사진)이 복귀하자마자 공격포인트를 올린 첼시 레이디스가 아스널 레이디스를 꺾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첼시는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근교 허트포드셔의 메도 파크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14-2015 FA컵 8강 원정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러시아와의 여자축구대표팀 평가전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지소연은 소속팀 복귀 사흘만에 열린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을 돕는 등 활약했다.

지소연은 전반 17분 정확한 코너킥을 날렸고 케이티 체프먼이 헤딩으로 골망을 갈랐다. 첼시는 공격수 젬마 데이비슨의 골바로 추가골 사냥에 성공하면서 점수차를 더 벌렸다.

아스널이 전반전 막판 한 골을 따라붙었으나 첼시는 후반전 지소연의 슈팅과 크로스바를 맞히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준기자

“이마트 新인사제, 비정규직화 위한 나쁜 제도”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 29일 열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법원 민사2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달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소장을 통해 "신인사제도는 기존 직급·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란 새 개념을 도입해 사원을 배치·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승진자 수의 급격한 저하를 야기하는 악질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예전에는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은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켜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지만, 새 방식은 뛰어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은 한 밴드에서 임금상승 없이 다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공대위는 사측이 신인사제도로의 변경을 위한 직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직원들을 몰아넣었다고도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과거의 이마트 인사제제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은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전임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9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직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이마트 측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식 공문이 없으면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현기자 hero@metroseoul.co.kr

부산시 9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광복회 부산광역시지부(지부장 임경혁)는 13일 오전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광복기념관에서 김기산 선생 유족과 생존애국지사, 부산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광복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H대 교수 “성기 그려오라” 과제 논란

성적 수치심 유발이냐, 시기상조냐' … "의도 전달 안 되면 오해부를 수 있어"

서울 H대학교 교양학부 C모(여) 교수가 "자신의 성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외국에선 생식기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는 취지로 종종 이 같은 과제를 내주기도 하지만 보수적 측면이 강한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 H대의 대학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주 이 대학 교양과목 '섹슈얼리티와 사회'를 가르치는 C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식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냈다.

C교수는 난감해 하는 수강생들에게 거울과 셀카봉을 이용하면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알려줬다.

해당 강의를 듣는 신입생은 '서울 H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섹심교양)B 성과사회시간에 자기 생식기를 그려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다. 과제를 거부할 수 있나"고 물었다.

또 다른 학생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C교수가) 사실 이런 과제는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과제를 어디서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관련 내용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으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최초 글을 올린 학생에게 "해당 교수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학교 페이스북에 달았다.

C교수는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과 성적 자기 결정권, 주체성 등을 논하는 것이 취지였다. 과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렵다면 메모 등 과제 수행의 결과만 내 놓을 수 있으면 된다. 해당 과제는 전체 과제 중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C교수는 일부 학생이 지적한대로 "생식기나 '쏠쏠하다' 등의 표현은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C교수는 "논란이 된 직후 학교 측이 나에게 먼저 해당 상황을 묻지 않고 논란이나 문제로 받아들여 당황스럽다"며 학교 측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교수가 과제 의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불이익 등의 권리 침해를 유발했다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미란기자 acl@

검찰, 경남기업 자금추적

'성완종 8억' 규명 초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경남기업의 자금호름 내역을 분석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지난 12일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관련 수사 자료도 일부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계 핵심 인사 8명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나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등에 등장하는 의혹 사안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우선 추적 대상이다.

성 전 회장이 2011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시효 혐의는 아직 유효하다. 2012년 홍문종 의원이 새누리당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던 시절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 등의 공소시효는 3년 이상 남아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의 통화기록과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담겼다가 지워진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성 전 회장의 48분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경향신문으로부터도 인터뷰 녹음파일을 건네받는다.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과 직함, 액수만 기재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실무를 맡은 점에서 메모 내용은 지난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홍원기자 hong@

2년 넘긴 대법원 계류 사건 615건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 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지난해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현문기자 hmk@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
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